

# 해양경찰정비창, 함정 MRO 산업 새시대 연다

〈유지·보수·정비〉

7년의 공사 끝에 지난 3월 4일 목포 허사도에 준공해 본격적인 ‘목포시대’의 막을 올린 해양경찰정비창이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뿐 아니라 미래먹거리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산업의 발전 초석이 되고 있다. 기존 부산 정비창 한 곳에서 380여척의 함정 수리를 전담해 왔지만 목포에 새롭게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창이 들어서며 함정 MRO 산업의 새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이다. 본창이라 할 수 있는 목포에 들어선 해양경찰정비창의 주요 현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MRO 산업의 도약을 위한 준비 등에 대해 알아봤다.

## 사업비 2584억 투입...목포 허사도에 ‘국내 최대 규모’ 준공 수리함정 승조원 장기 체류...소비 증가·지역경제 효과 창출 전남도, 함정 MRO 거점 본격화 등 수리선박 산업 도약 발판



해양경찰정비창 전경

대를 위해 맞춤형 기술 자문과 입찰 참여 지원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 △향후 발전 방향

향후 정비창은 AI 데이터 기반의 정비 체계 발전과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비창의 비전인 ‘첨단 과학 기술 기반 함정 정비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ESG 경영과 연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함정 가동률 향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거점으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해양정비창 출범이 단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수리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업체들이 해양 함정 정비 과정에서 실적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함정 MRO 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실적, 인증 체계가 중요한 산업인 만큼 해양 함정 외주수리 경험 자체가 향후 해군 및 해외 함정 MRO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함정 MRO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 성장해 6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MASGA를 계기로 미 해군 함정MRO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해군도 병력 감축과 함정 대형화에 따른 정비수요 증가로 단계적으로 함정 MRO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으로 MRO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리조선소와 기자재기업이 밀집한 전남도에 선박수리산업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다만 함정 MRO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 고도화, 방산 인증, 보안체계 대응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 또 지역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지역 기업 역량 강화

이에 전남도는 해양정비창의 외부 발주 사업에 지역의 우수한 수리조선·기자재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2025년 11월 전남도와 해경,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해양정비창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 목포해양대 선박수리지원센터 등과 함께 수리 전문인력 양성, 장비 대여, 컨설팅을 추진해 지역 기업의 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청 주도 함정 MRO사업(160억원, 2026~2030년)에 참여해 지역 수리조선 기업이 함정 수리·정비사업에도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함정 정비 시 필요한 엔진 등 핵심 기자재 업체를 적극 유치해 해양정비창 출범과 함께 수리조선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정비창 상주인력과 외주 수리업체 관계자, 수리함정 승조원·교육생 등 상당한 규모의 생활 인구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문화적 활력을 극대화하는 데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기 체류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함정 정비 후에도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양정비창 출범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이 미래 함정 MRO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도는 해양정비창의 목표 인착을 계기로 수리조선·기자재 업체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 지역 수리조선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한다”며 “정비창과 지역사회,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해양경찰정비창 전경

## 미시인터뷰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

### “완벽한 함정 정비로 해양안전망 구축”

“서해권 함정이 멀리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과 대형함정에 대한 정비지원 시설이 부족했는데, 목포에 정비창을 신설하면서 함정 정비 거점이 마련돼 서해권 함정에 대한 신속한 정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은 해양정비창의 본원이 목포에 들어서면서 부산과의 역할 분담과 수리기간과 이동 시간 단축,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창장은 “부산정비창은 동해권과 남해권 함정을 전담하고, 본원인 목포의 해양경찰정비창이 서해권과 제주권을 분담해 동·서남해권 균형된 함정 정비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돼 국민이 이용하는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해양정비창 최초로 1만t급 대형함정 상가(선박을 수중에서 육상으로 끌어올려 수리·도장·검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 시설을 구축해 최근 다수의 3000t급 함정 수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은 큰 성과로, 첨단 상가 정비시설 운용력과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운영 초기 단계로 향후 안정화 단계인 2028년까지 기관·선체·기계전기 등 다양한 함정 정비분야의 정비인력을 보강하면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정비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 정비창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창장은 정비창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조선산업 전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비창은 지난 4월말 기준 약 64억원을 지역 내에 예산을 집행했고, 지역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 조선산업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창의 수리함정과 정비물량이 확대되면 인근 조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교진 창장은 “정비창은 함정이 안전하게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정비를 완벽하게 지원해야 하고 나아가 함정 가동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양안보를 지키는 함정을 완벽하게 정비해 동·서남해권 해양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점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창장은 정비창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조선산업 전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비창은 지난 4월말 기준 약 64억원을 지역 내에 예산을 집행했고, 지역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 조선산업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창의 수리함정과 정비물량이 확대되면 인근 조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교진 창장은 “정비창은 함정이 안전하게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정비를 완벽하게 지원해야 하고 나아가 함정 가동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양안보를 지키는 함정을 완벽하게 정비해 동·서남해권 해양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점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해양경찰정비창에 들어선 플로팅도크



정비를 위해 해양경찰정비창에 상가된 해양경찰 함정